



Global Goings-on

폐기 처분되는 미사용 약품들 Up in smoke: £150m of medicines a year

- ▶ 약사에게 반납되는 약품이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(NHS)에 엄청난 비용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
- ▶ 런던 동부에 있는 머레이(Murray) 약국에는 매일 미사용된 약품이 반납되고 있지만,
 - 사람들은 반납된 약품이 재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뿐 결국 폐기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
 - 일부의 경우,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품을 반납하기도 한다고
 - NHS의 의료 폐기물 처리를 맡은 한 작은 하청업체는 3개월마다 머레이를 포함한 여러 약국에 운반차를 보내 반납된 약품을 회수한 뒤 소각장에서 폐기
 - 폐기되는 품목은 항곰팡이 샴푸, 진통제, 붕대 이외에 고혈압, 천식, 당뇨병 치료제 등이며 대부분은 개봉도 안된 것들로, 이 중 90%는 유통기한이 남은 상태
 - 이들 중 천식 환자를 위한 호흡기는 개당 £59이며 파킨슨병 치료제인 엔타카폰 두

- 박스는 £115
- 이번 3분기에 폐기되는 약들은 모두 £2,884에 해당
- 1년간 머레이 약국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약품은 £13,500여치가 넘을 것
- 파텔씨는 “충격적이죠. 사람들이 폐기되는 약품이 이 정도나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매일 이렇게 약품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반납되는 약품은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.”라고 말하기도
- ▶ 영국의 1만 1천 개 약국들에 반납되는 약품의 가치는 £150m를 상회할 것
- ▶ NHS가 의약품에 쓰는 비용은 연간 예산의 10%를 차지하는 £12bn이며 이 중 £8bn는 1차 의약품에 쓰임
- ▶ 지난 10년간 처방약 지급 건수는 거의 70% 증가
 - 2000년 영국인들에게 처방약은 5억 5천 2백만 건을 통해 지급되었고, 이는 1인당 11.2건에 해당
 - 2010년에는 각각 9억 2천 7백만 건과 17.8

건으로 증가

- ▶ 2007년도 회계 감사원(National Audit Office) 보고서는 미사용된 약물처리가 NHS에 엄청난 비용 손실을 입힐 것이며 1차 의약품 처방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힘
- ▶ 2010년 요크 건강 경제학 협회(York Health Economics Consortium)와 런던대학교 약학대학원의 연구는 연간 영국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 폐기된 약품이 £3억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봄
 - 그러나 미사용된 약품의 50%는 폐기 처분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
 - 보건부 자문관 조나단 메이슨(Jonathan Mason)씨는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
 - “처방약의 1/3에서 1/2이 올바르게 복용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복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거의 없죠.”라고 덧붙이기도
 - 치료약을 먹지 않는 고혈압 환자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고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
 - 메이슨씨는 응급 환자의 5%가 처방약을 올바르게 복용하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 것이며 이 때문에 최저 £5억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
 - 메이슨씨는 약사가 환자에게 약품에 조언을 해 환자가 가장 올바른 약물 복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

- ▶ 런던 대학교 약학대학원 행동 의학 교수인 롭 호른(Rob Home)은 약을 깜빡 잊고 복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
 - 이런 경우는 약 복용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세달 치 약을 한꺼번에 구입(다달이 구입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더 저렴)해서 쌓아놓는 경우
 - 의도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약 복용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
 - 호른 교수는 “약을 복용하려면 정말로 그 약이 필요하다고 믿어야 합니다. 약을 처방해주는 사람들은 왜 그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, 환자들의 우려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가능한 한 쉽고 편리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”라고
- ▶ 일반의이자 노팅엄 대학교 1차 보건의료 교수인 토니 애버리(Tony Avery)는 약사들이 환자의 실제적인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
 - 애버리 교수는 “대부분의 약국이 소규모 사업체이며 약사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인데도 단지 약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하도록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”라고
 - 애버리 교수는 ‘복용약 검토(medication review)’, 즉 의료 종사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,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이며 만일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환자와 함께 논의해서 올바른 약 복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
- ▶ 치료기간을 줄이고 동일한 약 복용 기간을 3

개월에서 1, 2개월로 줄이면 올바른 약복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미사용 약품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- ▶ 2011년 NHS 지속가능 발전국의 의뢰를 받아 행해진 Ipsos Mori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2%의 응답자가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재활용 약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혀
 - 지속가능발전국 국장 데이비드 펜천(David Pencheon)씨는 사람들은 폐약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시스템상 쉬운 일이 아니며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고
- ▶ 대신, 다중약물처방을 줄이고 올바른 약복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
- ▶ 또한 약물치료 외에 다양한 비약물치료(항우울제 투약대신 대화를 통한 치료, 체중 감량과 당뇨병, 심장병 예방을 위한 걷기 치료 등)를 활용해야
- ▶ NHS 지속가능발전국은 NHS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기관 중 하나이며 약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때문에 약품 조달이 탄소 발자국 생성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혀
 - 펜천씨는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약품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금전적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두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
- ▶ 그러나, 영국 약사회(Royal Pharmaceutical

Society) 마틴 애스버리(Martin Astbury)회장은 안전한 폐약품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

- ▶ 영국 보건부는 2011년 운영위원회를 조성해서 폐기되는 미사용 약품을 줄일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짜도록 했으며 현재 보고서 작성 막바지 단계에 이룸
 - 보건부 대변인은 “폐기되는 약품들을 줄이면 NHS가 환자들을 위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혀
- ▶ 한편, 머레이 약국에서 나오는 폐약품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

2012년 7월 3일 / The Guardian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guardian.co.uk/society/2012/jul/03/prescription-medicine-unused?INTCMP=SRCH>〉

이민을 제한하고 나선 싱가포르 정부 Singapore Restricts Foreigners

- ▶ 늘어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들의 유입을 통제하고 나서
 - 9월 1일부터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하려면 최소한 4천 싱가포르 달러의 월급을 받아야 할 것
 - 현재 영주권자를 포함한 싱가포르인의 평

<원문링크: <http://online.wsj.com/article/SB10001424052702303567704577518591429808110.html?KEYWORDS=Singapore+restrict+s+foreigners>>

일자리 손실을 경고하는 ILO ILO warns eurozone risks losing 4.5 million more jobs

- ▶ ILO(국제노동기구: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는 유로존이 긴축기조에서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4년 후에 4백 5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
 - 이로 인해 17개국에서만 2백 2십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
 - ILO는 긴축재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권고
 - “이것은 유로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로 번질 수 있는 문제”라고 우려를 표명
 - 유로존의 모든 17개 회원국이 긴축재정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
 - ILO 주창 소마비아 국장은 “실물경제에 투자를 증대시킬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고용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하기도
 - 긴축재정을 계속해 나간다면 특히 젊은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
 - 일부 기업체들이 곧 경기회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직원 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

문에 실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고

- ILO는 만일 이러한 기업체들의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

▶ 문제해결을 위한 ILO의 권고사항은

- 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조건부로 금융기관을 지원할 것
- 금융기관의 구제금융에 드는 자금을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부담하도록 할 것
- 청년 실업자들에게 직업 훈련, 교육 또는 실무연수를 시켜줄 것
- 생산성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 각국에서 임금 수준을 다르게 책정할 것

▶ 유로스테트(Eurostat: 유럽연합 통계청)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실업률은

- 지난 5월 11.1%에 달하기도
- 이는 공식적인 실업률이 기록된 1995년 이래 최고치로서 실업자의 수가 약 1,700만 명에 해당
-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지닌 스페인은 인구 4명 당 1명이 실업자
- 유로존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5월 22.6%에 달했고 이는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가 3백 4십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

2012년 7월 11일 / BBC News

<원문링크: <http://www.bbc.co.uk/news/business-18792720>>